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
제29권 15호(나해) 2009 · 3 · 8

[묵상]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르 9,7)

공생활 중반에 접어든 예수님은
카이사리아 필리피 마을을 지나시면서
제자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메시아 고백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고백이 ‘반쪽 메시아’라는 것을 아셨다.
나머지 반쪽은 고난과 역경, 배신과 배척,
처절한 죽음으로 엮어진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자기 목숨을 잃음으로써 다시 얻는 부활에 있음을
애써 가르쳐주셨다.
스승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야한다면
좋아하고 반겨줄 제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길을 다 갔을 때의 당신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고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다.
그분의 변모된 모습을 마주대하는 자는
누구든 자신이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안다.
죄를 씻고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한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영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엄은섭 도로테오, 차정진 마리아 (생)이정훈 안셀모와 도미니카, 유진 대건 안드레아, 유미 율리아, 조지 가보라,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송성창 릴리오, 정해홍 요셉, 이상곤 다니엘, 고 조나단, 최금옥 말찌나
주 일 낮 미사	(연)김수환 추기경, 한민교 세례자요한, 신임순 안나, 박재홍 제임스, 고준희 제임스, 김인영 베드로,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상현 베드로, 이준근, 양종숙,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차정진 마리아 (생)최석원 클레멘스, 최한나, 배은주, 김병숙, 오진 베드로, 최가브리엘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22,1-2.9-10-13.15-18

화답송 ◎나는 거닐으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닐으리라. <전례성가 64, 사순 제2주일 나해>
○모진 고생을 되뇌면서도, 나는 굳이 믿었노라. 가락할손 주님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어.◎
○주여, 나는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 여종의 자식이니이다. 주께서 내 사슬을 끊어주셨나이다.◎
○주여, 당신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미의 제사를 올리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워 드리리이다.◎
○주님의 궁전 안뜰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1-34

복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환호송 ○빛나는 구름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왔도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르코(Mark) 9,2-10

영성제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3	156
봉헌	270	257,255
성체	279	284,299
파견	154	153

25.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그 사람을 가졌는가? ...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 뿐이야.” 하고 믿어 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탕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함석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운 날」에서)

☞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듯이 녹이고 배불리 먹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2,14-17)

▶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만,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의 공기를 마시며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 왔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좋은 면에서든지 나쁜 면에서든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왜곡된 세대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던 타성도 과감하게 떨쳐 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형제애를 키워 가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책임이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아무도 혼자 고립되어 살 수 없다. 흔히 사람 ‘인’(人)자를 둘이서 서로 기대는 관계로, ‘인간’(人間)을 사람들이 서로 기대며 좋은 사이를 맺어야 하는 존재로 풀이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나이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주장이나 종교적 입장에 따라 편을 가름으로써 매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사회 혼란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안녕을 해치고 결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불행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적 관계로 존재하며,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공동 운명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질서와 조화를 갖춘 인간 사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 직장과 단체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CBCK 제공 - 계속)

그분의 웃은 새하얗게 빛났다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는 프라도회의 국제회의에 참석 중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선종 소식을 접하였다. 서둘러 귀국하려는데 여러 신부님들이 만류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한국 교회의 슬픔에 참여합시다!”하고 간청한다! 참담한 심정으로 지내며 기도하다가 “아! 추기경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웃으시며 강복하시겠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바라보며 더욱 그러하다. 김추기경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분이시다. 시공을 초월하여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인들의 통공을 믿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게 된다.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는 특별히 ‘그분의 웃은 ... 새하얗게 빛났다(3절)’고 말한다. 몸은 인간의 영혼이 머무르는 집이며 사람의 속마음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예수님의 이 외적인 변모는 이분의 내적인 본성이 어떠한 분인지신자를 보여준다. 즉, 예수님의 인간성(人性)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신성(神性)을 계시해 주신다.

예수님의 신성(神性)이란 다름 아니라 이분이 지니고 계신 선한 마음(善性)을 말하는데 ‘선(善)은 존재(存在)의 자기 확산성을 지니고 있다’(토마스 아퀴나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5절)’하고 고백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참된 아름다움(美)이란, 선한 마음(善性)이 외모로 흘러 넘쳐 찬란한 빛처럼 확산되어 가는 걸 말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영광의 주님의 모습(묵시 1,13-16)을 미리 보여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를 암시하신다(9절).

예수님의 존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선하신 마음이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 주시려는 오롯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이다. 이 선한 의지는 이미 이분의 탄생과 더불어 온 생애 안에서 실현되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이분의 수난과 십자가의 길 안에 이미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아름다움은 온 생애와 모든 행동 안에 퍼져 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모범 하나하나가 이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당신이 겪으실 수난에 앞서, 이 수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의 신비를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의 신비 안에 주님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할 때에 주님 영광의 빛이 이미 이 고통 안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7절).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2코린 3,16-18)

◆구요비 읍 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반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유철희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유현자 안나	김금자 테레사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사순 제2주일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동안 엄제하신 것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사순 피정

- 사도 바오로 서간 통독 : 준비물-성경, 색연필 한자루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 특강 '살아있는 신앙생활' : 3월27일(금) 오후 7시30분
강사 : 김경희 루치아 수녀(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 전 신자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을 위한 고통의 길에 함께 해 보십시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13일)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20일) : 토런스 북구역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4주일은 특강입니다.)

- 사순 제5주일 금요일(4월3일) : P.V. 구역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9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고 차정진 마리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채양섭 막시밀리안 콜베 & 채승희 에스더(P.V. 1반)의 모친 이신 차정진 마리아님(82세)이 3월2일 LA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 연도 일시 : 오늘 주일(8일) 낮미사 후 오후 1시, 성전

◆ 성모회 김치판매에 협조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익금 : \$1,502, 성모회 피정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 성모회 3월 월례회 : 오늘 주일(8일) 오후 1시 유아실

◆ 배론 청년회 사순피정

- 일시 : 3월13일(금)~3월15일(주일), 테미쿨라 꽃동네
- 주제 :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 신청 : 오늘 주일(8일)까지 ☎508-2123 최태훈 청년회장

◆ LA 대교구 사목지침에 따른 성체성혈 분배자 정기교육

- 일시 : 3월29(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 교육대상 : 전례부원, 성체성혈 분배봉사자(환자방문 봉성체 포함), 독서자, 복사
- 교육이수자 : LA대교구 발행 Certificate을 받게됩니다.
- 문의 : 전례연구위원장 김정웅 요한 ☎(310)720-8240

◆ 견진성사 교육 일정

- 오는 4월26일(주일) 성인신자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 예정되어있습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교육일정 : 4월21일(화)~24일(금) 오후 7:30~9:30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694-4585

◆ 남가주 M.E. 제63차 첫주말

- 일시 : 5월1일(금)~3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신청 : 백삼위 대표부부 최사비노 & 안젤라 ☎350-4185

◆ 성인 복사단 모집

- 교회 전례예식에서 사제를 도와 의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성인 복사단을 모집합니다.
- 봉사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310)365-7871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8일(주일) : 토런스 북 1/2반(콩나물밥 \$3)
- 3월15일(주일) : 하버/카슨 2반 (도시락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본엽 김우용 김충섭 박상준 방정복 육근주 이영석 정지숙 최진수	구자운 김원모 김한진 박수익 서홍삼 이근모 이영희 정훈모 한혁수	김광자 김종문 노혜숙 박정희 송재훈 이근태 이은록 조윤영 홍석인	김대우 김종환 문두현 박종열 안민수 이명자 이미예 이태옥 조준제 홍선자	김선제 김준호 문영일 박준구 안재만 이영희 이영석 장숙환 조화숙 홍주희	김성현 김철민 민기남 방세훈 오일순 이상석 정동호 지경수 황학수
미사헌금 : \$3,031.95	합계 : \$5,570					

성전헌금	구본엽 김우용 김충섭 박수익 서홍삼 이명자 정동호 지경수	구자운 김원모 김한진 박정희 안민수 이영석 정지숙 최진수	김광자 김종문 노혜숙 박종열 안재만 이영희 정훈모 한혁수	김대우 김종환 문영일 박준구 오일순 이은록 이태옥 조준제 홍석인	김선제 김준호 민기남 방세훈 이근태 장숙환 조준제 조화숙 홍주희	김성현 김철민 박상준 방정복 이근태 장숙환 조준제 조화숙 홍주희
제대초 봉헌 : \$1,110	합계 : \$3,450					감사헌금 : 조화숙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사순피정 신청

- 주제 : Heaven on Earth
- 일시 : 3월13일(금)~15일(주일), 금요일 오후4시 성당 출발, 일요일 오후 5시30분 도착예정(버스로 함께 이동)
- 장소 : 테미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참가비 : \$40(3월2일 이후 \$50)
- 대상 : 7학년~12학년(선착순 40명)
- 준비물: Bible, Rosary, Sleeping bag, Pillow, Towels, Toiletries, Extra shoes, Warm jacket, 주일미사 현금
- 신청 : 오늘 주일(8일)까지 주일학교 교사실, 사무실

◆ 견진성사

- 대상 : 10~12학년
- 리허설 : 5월8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 14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일시 : 5월15일(금) 오후 7시
(견진대상자와 대부모는 3일간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주례 : Sartoris 주교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
- 신청 : 3월29일(주일)까지 *신청비 : \$10

◆ 2009년 교무금/성전헌금 약정서

- 교우 각 가정에 2008년 교무금/성전헌금 납부내용을 우송했습니다. 납부내용 하단에 기재된 2009년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우송, 또는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새주소)을 알려오지 않아 반송되어 은 교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약정서를 가져가신 후 새주소를 등록하십시오.

남가주 소식

◆ 폴 비오 신부의 '치유와 은총의 시간' 피정

- 일시 : 3월14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3월15일(일) 오후 6시30분~10시
- 강사 : 폴 비오 신부(이탈리아 성령채신 봉사회 전국위원 구마사제), 알다 피트리니 수녀(엠마누엘 수도원 원장)
- 장소 : LA 성 바실 성당
- 참가비 : \$20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제5차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3월20일(금) 낮 12시30분(Shotgun Start)
- 장소 :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CCC) * 참가비 : \$100
- 문의 : 정율리아 ☎(310)404-1607, (213)389-4612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지마테오 & 안젤라 972-8292 3/20(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한요아킴 & 안나 530-7702 3/21(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3/13(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인식 토마스 534-3743 3/15(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신알베르토 424-558-4223 3/21(토) 오후 6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기숙 엘리사벳 318-5079 3/10(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이석진 가브리엘 326-5867 3/20(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325-6982 3/11(수) 오전 10시30분
	3	강은진 켈마 214-2290	이정아 리디아 (213)200-9432 3/13(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황지영 안젤라 782-0844 3/6(금) 오후 7시,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3/13(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3/7(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종선 리비나 748-7323 3/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13(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3/13(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오현희 골롬바 265-0793 3/12(목) 오전 10시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데살로니카 1서, 데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필리피서 - 필리피 신자들의 후의에 보내는 감사와 축복 ◎

필리피서는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교회에 보낸 서간으로, 필레몬서, 에페소서 및 콜로새서와 함께 옥중서간이라 한다. 옥중서간이란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필리피와 사도 바오로의 관계** : 필리피는 에게해 건너편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다.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바오로 사도 당시에는 제국의 수도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 중심지이자 무역 중심지로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기원전 360년쯤에 건설한 도시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라 불렀다. 로마제국이 마케도니아를 점령한 후 기원 전 31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 바오로가 필리피에 처음 간 것은 2차 선교여행(50~52년쯤) 때였다. 사도행전에 따르면(16,6-40), 바오로는 환시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유럽 대륙에 첫발을 내딛는다. 네아폴리스를 거쳐 필리피에 도착한 바오로는 자색옷감장수 리디아라는 부인을 만나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부인의 간청으로 그 집에 잠시 머물러 필리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리디아 집은 말하자면 필리피 교회의 요람이 된 셈이다. 그러나 필리피 사람들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는 등 고통을 당한 바오로는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난다.

◇ **집필 배경과 시기 및 장소** :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한마디로 필리피 신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후의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필리피 신자들은 바오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에파프로디토스를 보내 바오로를 시중들게 하고 선물도 팔려 보냈다. 바오로의 표현에 따르면 그 선물은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느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제물’(필리 4,18)이었다. 그런데 에파프로디토스는 바오로의 시중을 들다가 그만 병이 나 죽을 뻔 한다. 다행히 회복했지만 필리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을 본 바오로는 그를 필리피로 돌려보내는 길에 필리피 신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실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다른 공동체들에게서는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필리피 신자들에게서는 물질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2코린 11,9 ; 필리 4,15-16)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필리피 신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바오로의 마음이 서간 곳곳에서 묻어나 있다. 그렇다면 바오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곳은 어디일까? 아직도 분분한 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페소를 손꼽는다.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큰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데(1코린 15,32; 2코린 1,8-10; 11,23) 그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무른 것으로 보아 감옥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집필 시기는 코린토 2서를 썼을 때와 비슷한 시기 또는 그 직후인 55~56년쯤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 **주요 내용과 특징** : 서간은 특정 주제에 대한 바오로의 사상을 일관되게 담고 있다기보다는 감사 편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오로는 먼저 필리피 신자들을 위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1,3-11),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한다.(1,12-26)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사도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이어서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훈계한다.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일치하며 겸손하게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기뻐하라고 당부한다.(1,27-2,18) 특히 ‘그리스도 찬가’(2,6-11)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다음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를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2,19-30) 또 바오로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이단을 조심하라고 권고하고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나서는 늘 기뻐하며, 참되고 고귀한 것들을 추구하라고 거듭 당부한다.(3,1-4,9)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후의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인사와 축복을 전하면서 서간을 마무리한다.(4,10-23)

[◆평화신문 / 이창훈 기자]